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육일승천하는 中國 -우리의 수출시장

2004. 3. 4(목)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육일승천하는 中國 -우리의 수출시장

2004. 3. 4(목) 16:00 - 18:00

KOTRA 아카데미 강의실

연사 : KOTRA 경기무역관 백인기 과장
(베이징 무역관 근무)

목 차

I . 일반개황	1
II . 중국경제의 위상과 전망	2
1. 세계경제에서 중국경제의 위상 / 2	
2. 중국경제의 장기비전 / 3	
3. 중국경제의 주요 문제점 / 4	
III . 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	5
1. 2003년 중국경제 실적 및 평가 / 5	
2. 2004년 중국경제 전망 / 8	
IV . 한중 경제교류 현황	11
1. 한중 교역현황 / 11	
2. 품목별 수출입 동향 / 13	
3. 대중 투자현황 및 문제점 / 16	
V . 중국 이해	19
1. 중국시장 특성 / 19	
2. 중국에 대한 오해 / 20	
3.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사상 / 23	
VI . 중국 진출시 유의사항	28

I

一般概況

일 반 사 항		내 용				
공 식 국 명	수 도	○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 Beijing(인구 1,423.2만명, 2002년 현재) ○ 959만 7천km² (한반도의 43.2배) ○ 12억 8,453만명 (2002년) - 인구증가율 / 인구밀도 : 6.45% / 133.8명/km²				
국 토 면 적						
인 구						
경제지표		1999	2000	2001	2002	2003
	GDP(억元)	82,054	89,404	95,933	102,398	116,694
	1인당GDP(元)	6,517	6,903	7,517	7,972	9,079
	경제성장률(%)	7.1	8.0	7.3	8.0	9.1
	물가상승률(%)	-1.4	0.4	0.7	-0.8	0.7 (9월말 현재)
	도시실업률(%)	3.1	3.1	3.6	4.0	4.3
	도시 평균임금(元)	8,346	9,371	10,870	12,422	-
	임금상승률(%)	11.6	12.3	15.2	15.5	-
	수출(US억\$)	1,949 (6.1)	2,492 (27.8)	2,666.6 (7.0)	3,256 (22.3)	4,383.7 (34.6)
	수입(US억\$)	1,657 (18.2)	2,251 (35.8)	2,435.6 (8.2)	2,952 (21.2)	4,128.4 (39.9)
	무역수지(US억\$)	292	241	231	304	255.3
	FDI(실행,U억\$)	404 (-11.3)	407 (0.7)	468 (14.9)	527 (12.5)	535 (1.44%)
	외환보유고(US억\$)	1,546.8	1,656	2,122	2,864	4,033
	총외채(US억\$)	1,518.3	1,457.3	1,701.1	1,685.4	1,840.9 (9월말 현재)
	연말환율 (1US\$대비 RMB)	8.2793	8.2774	8.2766	8.2773	8.2767

II

中國經濟의 位相과 展望

1. 世界經濟에서 中國經濟의 位相

☐ 경제규모(GDP) 세계 6위(2002년 기준)

☐ 교역규모 세계5위(2002년 기준)

- 수출 : 세계 5위(1~4위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순)
- 수입 : 세계 6위(1~5위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순)
 - 2003년 일본·영국·프랑스를 제치고 미국·독일에 이어 세계 3위 수입국으로 부상

☐ 외환보유고 세계 2위('03년 말 현재 4,033억 달러)

☐ 외국인 투자유치 세계 1위

- 중국은 1993년 외자 최다유치 개도국으로 등장한 이후 2002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FDI 유치국으로 부상

☐ 세계의 공장파 시장으로 부상

- 전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 중 450개가 중국현지 생산체제 구축하며 생산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품목의 구성에 있어 고도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개혁·개방 이후 20여년 간 연평균 9% 이상의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수입시장 규모는 2004년 5,000억 달러에서 2005년 6,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

2. 中國經濟의 長期 Vision

- 중국 정부는 제16기 당 대회('02.11)에서 **2020년까지 GDP를 4배로** 증가시켜 “**전면적인 小康사회**”를 달성한다는 장기비전 제시

【 중국경제 장기 발전목표 】

비약적 발전단계		공업화 단계 : 1인당 GDP 3,000달러시대
2002-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로 진입	⇒	2020년에 이르러 2000년 GDP 4배 목표 - 경제성장률 : '02-'20년간 7.2%선 유지 - 2010년 GDP 2조달러 달성 (전세계 4위) - 2020년 GDP 4조달러 달성 (전세계 3위)

안정적 성장단계		현대화 단계 : 1인당 GDP 1만달러 시대
2021-2050년 따통(大同) 사회로 진입	⇒	2050년에 2020년 GDP의 4배 수준 달성 - 경제성장률 : 4.7%선 유지 - 전세계 GDP 비중 : 14 - 18% - 2035년 GDP 10조 달러 달성 - 2040년 전세계 GDP 2위 (미국 1위)

※ 중국은 溫飽-小康-大同 이라는 사회발전 수준을 제시, 각각 먹고 살만한 수준, 비교적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의미

- 세계 주요 기관별 중국경제 장기성장율(%) 전망치

'91~'95	'95~'00		'00~'10	'10~'20
-	-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7.0	5.5
12.0	8.3	- World Bank	6.9	5.5
-	-	- Global Insight	6.6	5.6

* 자료 : IMF

3. 中國經濟의 主要 問題點

	현황 및 문제점	중국정부 대책
국유기업 부실	- 국유기업은 중국기업수의 37.8%, 생산액의 48.9%, 은행대출의 70% 차지 - 경영비효율, 공급과잉에 따른 적자 확대 - 국유기업의 적자는 금융부실, 재정부실의 주요 원인	-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신설('03.3) - 국유기업의 민영화, 구조조정추진 → 실업을 증가 초래
금융부실	- '03년 말 4대 국유은행의 부실채권은 총 대출금의 21.38%, 자기자본비율은 5%미만 - 국유기업의 대출의존 경영, 금융시스템의 미비 등이 주요원인	- 공적자금 투입 - 금융개혁 위해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신설('03.3)
실업문제	- '03년 공식발표 실업률은 4.2%이나 실제 실업률은 7% 이상(일시 해고자, 농촌잉여노동력 포함) - 수요위축에 따른 디플레이션 지속으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우려, 각종 사회문제 발생 - 현 중국은 개혁과 고용확대의 딜레마	- 서비스산업 확대, 비국유기업 성장 정책을 통한 고용창출 능력 확대에 주력
재정적자	- 현재의 재정적자와 국채수준은 국제기준 내에 있으나 확대재정정책 지속, 사회보장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문제발생 우려 - GDP대비 재정수입 비율이 17%에 불과	- 세제, 징수체제 개혁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 추진 -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추진
빈부 격차	- 도시소득은 농촌 소득의 3배 -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동부 연해지역과 중·서부 내륙 간 소득격차 확대(상해시의 소득은 내륙지역인 사천성의 5배) - 계층간 소득 불평등 심화(지니계수 0.4이상) 따른 사회 불안정	- 동·서간, 도·농간 균형발전 추진 · 서부대개발사업 · 농촌개혁 추진

Ⅲ

最近 中國經濟 動向 및 展望

1. 2003年 中國經濟 實績 및 評價

가. 경제성장

□ 2003년 중국의 GDP는 116,694억 위안으로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9.1% 증가

○ 사스확산 및 세계적 경기침체 등 대내외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수출호조에 힘입어 1997년(8.8%) 이후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

- 2003년 중국의 1인당 평균 GDP는 1,090달러를 기록, 1인당 GDP 1,000달러 시대의 막을 처음 열었으며 소득수준의 제고에 따라 소비행태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기대

나. 고정자산투자

□ 고정자산투자는 30%대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중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이는 지난 6년간 지속된 확대재정정책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인

○ 상반기 고정자산투자가 31.1% 증가하면서 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중국정부의 중복투자 방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조정 등으로 증가세 다소 둔화

다. 공업생산액

- 2003년 공업생산액은 전년대비 약 17%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소득증가에 따라 전자통신, 자동차 소비증가 및 공업제품의 수출증가가 공업생산 증가를 주도
 - 2003년 1-11월간 공업생산액은 전년 동기대비 16.8% 증가(3조 6,694억 위안)하였으며 공업기업 이윤액은 7,251.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4.6% 증가

라. 물가 및 소비

- 소비자물가는 전년도에 하락세에서 전환, 1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며 중국정부 당초 목표치인 1%이상 상승 전망
 - 1-11월말 소비재 매출은 자동차, 통신장비 등 수요증가로 8.9%(4조 1,106억 위안) 증가하였으나 2/4분기 사스 영향과 농촌지역의 소비재매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연간 목표치 10%대비 다소 부진

마. 무역

- 2003년 중국의 무역액은 8,512.1억불로 전년대비 37.1% (2,304억불)증가하여 1980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수출과 수입은 4,383.7억불, 4,128.4억불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4.6%, 39.9%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57.2억불 흑자를 기록
 - 중국의 WTO 가입 효과로 수출실적이 당초 전망치 10%를 훨씬 초과하였으나 국내외 원자재 가격상승, 수입관세율 인하,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

바. 외국인 투자

□ 2003년 중국의 외자유치 건수는 4만 1,081건으로 전년대비 20.22% 증가하였으며, 계약액과 실행액은 1,150.70억불과 535.05억불로 전년대비 각각 39.03%, 1.44% 증가

○ 외국인 투자(실행액 기준)는 사스 발생 이후 증가 둔화세를 보이며 1.44% 증가에 그쳤으나 계약액은 4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여 향후 외국인 투자 증가세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03년 12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 누계는 46만 5,277건, 계약액과 실행액 누계는 각각 9,431.3억불, 5,041.71억불에 달함

<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

(억달러, %)

		2001	2002	2003(추정)	2004(전망)
GDP성장률		7.3	8.0	9.1	8.4
광공업생산(부가가치)		9.9	12.8	16.9	15.0
소비자물가		0.7	-0.8	1.1	2.0
고정자산투자(국유,기타)		13.7	17.4	29.5	16.5
소비재소매총액		10.1	8.8	9.0	11.5
수출입	무역수지	225.5	303.4	250.0	205.0
	수 출	2,661(6.8)	3,256(22.4)	4,384(34.6)	5,385(22.8)
	수 입	2,436(8.2)	2,952(21.2)	4,128(39.9)	5,180(25.5)
M2증가율		14.4	16.9	20.2	18.5
환율 (위안/달러)		8.277	8.277	8.277	8.277

2. 2004年 中國經濟 展望

□ 중국경제, 8% 이상 성장 전망

- 정부 재정정책은 소폭 완화될 전망이나 산업생산, 대외무역, 외국인투자 확대, 소비수요 확대 등으로 정부 목표치 7%를 상회한 8%대 수준의 고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경기과열 우려에 따른 거시경제정책 조정(투자둔화 요인), 통상 마찰 심화(수출둔화 요인) 등 요인으로 지난해 대비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

□ 대외교역 1조 달러, 수입 5천억 달러 진입

-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 조치와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2004년 중국의 무역액은 1조 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2004년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높은 증가로 인하여 다소 둔화된 10-20%대의 증가율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수출 증치세 환급을 인하와 수입시장 확대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할 경우 무역수지 적자현상도 발생 가능

□ 시장진입장벽 지속 완화

- 관세, 비관세장벽 완화로 교역·투자부문 동반 상승 효과가 예상되며 무역수지 흑자 대폭 감소현상 (또는 적자 발생) 발생 시, 반덤핑 조사 확산 가능성

- 중국은 WTO가입 3년차를 맞이하여 법률 정비, 제도적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 영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3년 대비 FDI 실적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내수 소비시장 활기

- 내수 중심 경제정책 추진으로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산층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및 정부의 농촌소득 증대조치 등으로 지난해 대비 다소 개선 전망(10%대 초반 수준)
-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고정자산 투자 급증에 따른 철강 등 원부자재 가격상승, 과도한 통화공급 증가 등에 따른 불안요인이 있으나
- 기본적으로 아직 산업전반의 공급과잉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대비 다소 높은 상승률 전망

□ 공공부문 시장규모 확대

- 2008 베이징올림픽, 2010 상하이엑스포 본격 준비로 정부 조달 등 공공부문 시장 확대가 예상되며 시장 규모는 2천억 위안(2003년대비 30% 증가) 이상 전망

□ 지역경제권 두각

- 상하이 중심의 화동경제권(長江삼각주)과 광저우 중심의 화남경제권(珠江삼각주)이 양대 산업벨트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CEPA 정식 발효로 홍콩 자본의 진출 급증 전망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가율이 20%에 달하고 고정자산투자도 30%에 달하는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논의됨
 - 고정자산투자가 부동산 개발 및 자동차, 금속, 시멘트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과열기미를 보이면서 원자재와 원료 등 수요가 급증하고 일부 농산물 가격의 단기 상승현상이 발생
- 이에 대해 최근의 경제성장은 지난 7-8년간의 성장을 둔화에 대한 반등이며 통화공급을 억제할 경우 디플레이션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하여 예의주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경제전문가의 일치된 견해이며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운용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 미국 및 EU 등은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 및 경기 회복지연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정부에 위안화 절상압력을 가하고 있음
 - 미국의 對 중국 상품수지는 2002년에 1,0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03년 1-9월중 897억 달러의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21.6%나 증가하는 등 미국 상품수지 적자의 1/4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
-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수출이 중국기업들의 급격한 성장보다는 중국에 진출한 서구 다국적기업들의 수출에서 발생한 것이 크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

IV

韓中 經濟交流 現況

1. 韓中 交易現況

□ 美·日 제치고 최대 수출대상국 부상

- 2003년 1~11월 대중 수출은 314.9억 달러로 대미 수출(307.6억 달러)을 앞섰으며 '03년 연간 대중 수출액은 350억 달러 상회 추정 (수교 당시와 비교 시 약 13배 증가)

< 한·중 교역추이 >

(단위 : 억불, %)

구 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1-11월
총 액	226(22.6)	314.1(43.2)	314.9(0.2)	411.4(30.6)	511.6
對中수출	137(14.6)	186.1(37.6)	181.9(-1.4)	237.5(30.6)	314.8(48.4)
對中수입	89(36.7)	128.0(62.4)	133.0(3.9)	173.9(30.8)	196.8(25.1)
무역수지	48(-11.0)	58.1(3.5)	48.9(-2.8)	63.5(29.8)	118

자료원: KOTIS, ()은 증감율

- '92년 한·중 수교 당시 제6위 수출대상국이었던 중국은 '01년 일본을 앞서 2위로 부상한 뒤 약 1년 반 만에 '03년 9월부터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

□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

- 대중 무역수지는 한·중 수교이전 만성 적자구조였으나 '93년부터 큰 폭의 흑자로 전환되었고 중국은 '03년 홍콩을 앞서 우리나라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지역)으로 부상
- '03년 1~11월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132.72억 달러 중국(지역)별로 각각 중국(117.99억 달러), 북미지역(107.41억 달러), 홍콩(105억 달러), 유럽(67.42억 달러)의 흑자 기록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 현황

(단위 : 억 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액
1	중국	314.8	1	일본	326.3	1	중국	117.9
2	미국	307.6	2	미국	225.9	2	홍콩	104.9
3	일본	156.1	3	중국	196.8	3	미국	81.6
4	홍콩	128.6	4	사우디	83.3	4	멕시코	19.3
5	대만	63.1	5	독일	60.8	5	베트남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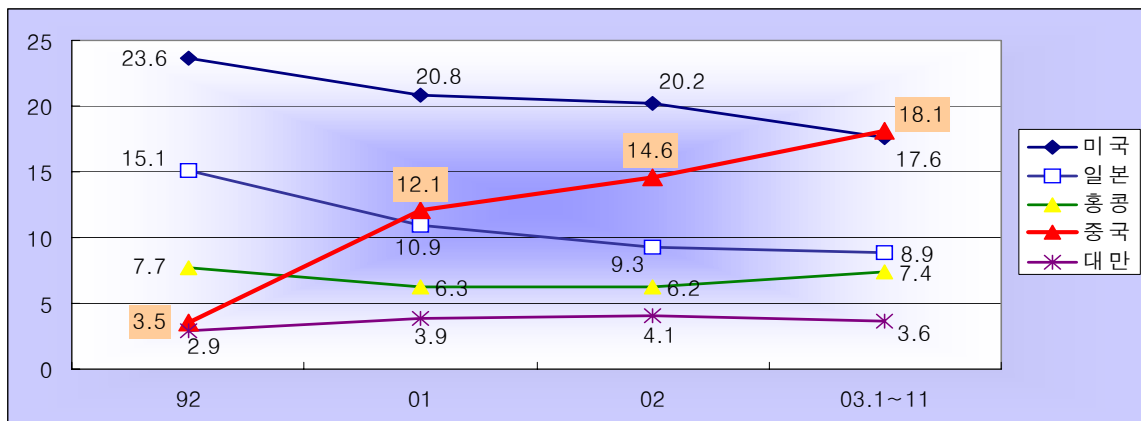
자료원 : KOTIS 한국통계 1-11월 기준

□ 대중 수출의존도 급상승

- 대중 수출의존도는 '92년 3.5%에서 '03년(1~11)에는 18.1%로 미국(17.6%)을 앞섰고 홍콩·대만 포함시, 29.1%임

-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시장 비중은 지속 하락세

우리나라 5대 수출시장의 비중 변화(단위 : %)



자료원 : KOTIS(관세청 통계기준)

- 대중 수출기업 수는 '99년 8,956개에서 9,647개('00), 10,142개('01), 10,932개('02), 11,620개('03. 1~11)로 급증하고 있으나 대미·대일 수출기업 수는 해마다 감소

□ 화동권, 최대 수출지역으로 부상

○ '03년 들어 상하이-장쑤(江蘇)성-저장(浙江)성 등 3개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이 34.89%로 급상승, 화동권이 중국내 우리 상품의 최대 수출지역으로 등장

- 이는 최근 화동권을 중심으로 대외무역권 보유기업이 크게 늘었고 항만 등 인프라가 집중 개선된 때문

2. 品目別 輸出入 動向

가. 주요 수출품목 동향

□ 중국의 WTO가입 이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와 내수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보통신,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의 제품이 매년 두자리수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급부상

<중국의 생산력 확대에 따른 수혜품목의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

- * 컴퓨터(1위) : 153.5('00) → 3.3('01) → 145.4('02) → 91.9('03.1-11)
- * 무선통신기기(2위) : △19.5('00)→ 289.3('01) → 343.0('02)→ 58.1('03.1-11)
- * 반도체(6위) : 138.2('00) → △35.4('01) → 110.1('02) → 114.0('03.1-11)
- * 자동차부품(9위) : 18.1('00)→ △5.5('01)→ 116.2('02)→ 510.0('03.1-11)

- 주 : MTI 3단위 기준 (순위는 2003년 11월말 현재)

□ 중국정부의 확대재정정책과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에 따라 관련 품목의 수출증가세도 확대되고 있으며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 엑스포 등의 호재로 장기적으로 수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국의 인프라 건설 확대에 따른 수혜품목의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 %)

- * 건설광산기계(11위) : 23.8('00) → 29.5('01) → 61.7('02) → 110.8('03.1-11)
- * 기타기계류(12위) : 151.1('00) → △3.3('01) → 26.7('02) → 44.0('03.1-11)
- * 섬유 및 화학기계(20위) : 71.5('00)→△5.1('01)→ 63.6('02)→ 32.3('03.1-11)
- * 전선(24위) : 24.9('00) → 48.2('01) → 29.0('02) → 54.6('03.1-11)

- 주 : MTI 3단위 기준 (순위는 2003년 11월말 현재)

□ 소수 품목에 집중된 수출구조, 브랜드 인지도 취약, 對韓 수입
규제 확대 등은 중장기적 대중 수출확대에 제약

- 석유화학, 철강, 화섬 등 對中 수출이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
으며 특히 상위 5대 품목의 비중이 40%에 육박, 중국의 정책
및 환경 변화시 전체 수출이 직접적 타격을 받는 취약한 구조

對中 주요 수출품목 및 실적

(단위 : 백만불, %)

순위	품목	2002		2003 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산업용전자제품	4,283	199.7	6,474	76.4
2	석유화학제품	3,919	17.5	4,791	35.3
3	전자부품	2,406	47.0	3,210	48.9
4	철강제품	1,667	20.8	3,210	48.9
5	광물성 연료	1,212	-27.4	1,594	42.4
6	직물	1,547	-2.9	1,495	5.2
7	산업기계	1,015	65.0	1,486	71.5
8	수송기계	418	61.0	1,325	277.3
9	가정용전자제품	833	23.4	1,003	31.5
10	기초산업기계	399	18.3	780	117.1

자료원 : KOTIS 통계

주 : 순위는 2003년 기준, MTI 2단위 분류

- 휴대폰 등 일부 하이테크 제품을 제외하면, 현지에서의 한

국 제품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원부자재 중심의 수출상품구조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취약하여 장기적 내수시장 개척에 어려움

○ 중국의 對韓 무역적자 확대로 수입규제 심화 우려

- 중국의 수입시장 개방확대에 따라 중국내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과잉공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중국정부의 반덤핑 공세 지속 예상

나. 주요 수입품목 동향

□ 우리의 주요 대중수입품목은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제품, 전자부품, 광물성 원료 등 1차제품과 공업제품이 대부분을 차지

- 특히 기초 전자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농산물 및 수산물 등 1차 제품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일반 소비재 또한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동일품목군의 고급제품과 중저급제품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음

-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기초부품 및 완성품의 수입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내 다국적 기업의 진출 증가로 품질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對中 주요 수입품목 및 실적

(단위 : 백만불, %)

순위	품목	2002		2003. 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감율
1	산업용 전자제품	1,839	24.2	2,442	46.9
2	전자제품	1,775	47.8	2,281	42.6
3	섬유제품	1,879	47.0	2,005	15.3
4	농산물	1,367	45.3	1,585	34.2
5	광물성 연료	1,474	14.4	1,487	12.8
6	철강제품	691	21.0	999	60.4
7	가정용 전자제품	847	23.2	874	13.7
8	비철금속제품	671	47.7	830	36.2
9	중전기	747	17.8	799	18.3
10	정밀화학제품	745	17.7	772	13.8

자료원 : KOTIS 통계

주 : 순위는 2003년 기준, MTI 2단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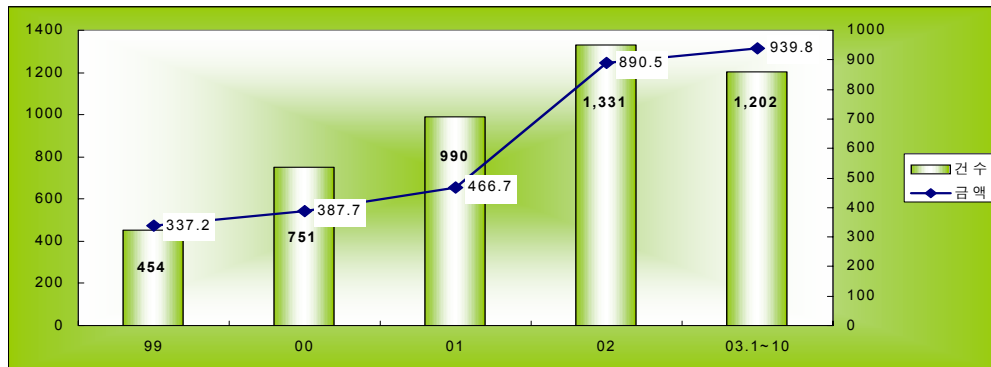
3. 對中 投資現況 및 問題點

□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투자규모 확대 추세

- 실행기준으로 '03. 1~10월 1,202건 9.4억 달러 투자로 건수, 금액 모두 미국을 제치고 제1위 해외투자 대상국 부상

연도별 대중 직접투자 실적

(단위 : 건, US\$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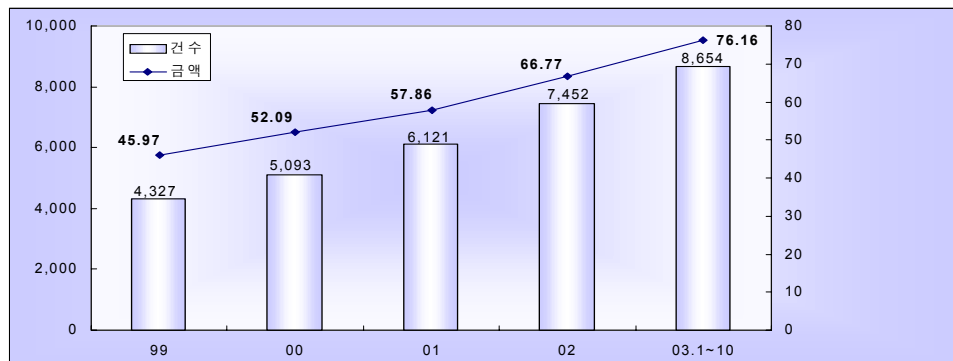


자료원 : 수출입은행

- '91년 69건, 4천 2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對中투자(실행기준)는 국교수립 후 연평균 6% 이상 신장, 현재 총 누계 8,654건, 76.16억 달러로 급신장

대중 직접투자 실적(년말 누계)

(단위 : 건, US\$ 백만)



자료원 : 수출입은행

- 대중 투자증가에 따른 현지투자기업과 모법인간의 거래확대로 수출증가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음

- 특히 발해만 지역의 경우 섬유와 의류, 조립금속, 전자통신장비 등 한국산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한국으로부터 관련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특정지역 집중 및 제3국 수출형 투자 개선 필요

- 최근 완화되고는 있으나, 산동성, 동북 3성에 투자 집중
 - '03년 10월 현재 산동성과 동북 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이 전체 대중 투자의 금액기준 42.7%, 건수기준 61.9%
 - 최근 장강삼각주(상하이,장쑤,저장), 환발해(베이징, 티엔진, 산둥) 및 주강삼각주(광둥)로의 투자비중 증가세

- 업종별로는 전체 투자 건수의 약 80%가 제조업에 편중
 - 섬유, 의류, 신발 등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제3국 수출형 제조업 투자가 주종을 이뤄 중국 내수시장 진출 투자 취약
 - 투자개방 업종 확대, 내수시장 활성화로 가전, 통신, 기계, 자동차, 유통, 금융 등 내수시장 투자 비중 점차 증가
- 대중 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공동화 문제 해결 및 투자확대를 우리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전략 필요

1. 중국 시장 특성

□ 지역, 계층별 소득 및 소비구조가 큰 차이를 보이는 시장

○ 중국인의 소비 및 소득수준은 도시와 농촌,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소득 계층별로 큰 격차

- 중국전체의 GDP수준은 800불 수준인데 비하여 상해, 북경, 광주 등 주요도시의 GDP는 4,000불

○ 중국에도 광범위하게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중산층의 소비행태도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음.

- 중국은 8억의 농촌인구와 도시빈민층을 합치면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가난한 국가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거대한 중산층이 형성되고 있으며 그 숫자는 2억5천만명에 육박하고 있음.

※ 결국 중국시장은 '통일된 단일시장'이 아니라 '여러개로 나뉘어진 시장의 집합체'로 획일적 접근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시장공략이 어려운 바, 지역별, 계층별로 나누어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

□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시장

○ 외국기업의 품질 좋고 다양한 상품이 백화점에 진열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의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시장으로 변모.

- 초기 중국 시장 진출 시 품질 좋은 고급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심

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

- 패션, 잡화류, 가전, 자동차 등 모든 영역에서 다국적 기업의 상품 혹은 직수입품이 고가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음. (예 : 삼성 애니콜, LG 대형 평면 TV 등)
-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는 1인당 1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8,000만명 이상

☐ 人治에서 法治로의 전환기에 있는 시장

: 너무 관시(關係)에 의존하지 마라. 市長 말고 市場을 찾아라

- 중국은 과거 불투명한 사회체제로 법제나 규칙보다는 소위 “관시”라는 사적 인간관계가 중시
-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점차 사회가 제도화됨에 따라 합리적인 인간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음

☐ 공급자 시장에서 수요자시장으로 전환

- 과거 계획경제의 물자수급 부족으로 중앙의 분배시스템에 의한 수요, 공급체계에서 개혁개방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
- 현재 상품의 과잉공급의 상태로 가격결정권은 공급자에서 유통상, 소비자로 이전되고 있음.

2. 중국에 대한 오해

☐ 중국은 저임금 국가 ?

중국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13억 인구이다. 우리는 언젠가

부터 인구대국=저임금 국가라는 등식을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착각을 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임금이 한국보다 싼 것은 절대적인 사실이지만 점차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

중국의 명문대학 출신자의 임금이 우리 기준으로 보아서도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고급 기술인력 중 중국계가 25%의 비중 차지.

중국의 많은 유학생이 중국의 발전으로 귀국하는 추세이며 다국적 기업의 중국진출로 중국은 점차 저임금국가에서 고급인력국가로 탈바꿈중.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120\$이지만 의료, 실업, 주택 등 복리혜택을 포함하면 실제로 통상 2~3배가 지급됨

□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인가 ? 사회주의 국가인가 ?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변하고 있음. 중국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이미 뛰어넘었음.

90%이상 상품거래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지상권만이 인정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소유제의 제약으로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음. 헌법에서도 소유제를 과감히 인정하고 있으며 작년도 중국은 대표적인 부르조아 계층인 기업가들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

그러나 분명히 인식하여야할 사실은 중국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이며 언론 및 인터넷이 통제되고 있고 공산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이해하여야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은 아직도 만만디(慢慢地)인가?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중국에 와있는 한국기업 중 상당수는 중국사람이 만만디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돈에 관한한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더 빠르고 민첩하다. 전세계 상권을 잡고 있는 것이 유태인과 화교라는 사실을 보면 중국인이 과연 만만디인가

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 사회주의 관습으로 근무의욕이 떨어진다?

가전업체인 하이얼(海爾)그룹은 사원들의 아이디어를 가격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하이얼 직원의 급여차는 최대 10배까지 난다. 세탁기를 주력품목으로 성장한 가전업체인 춘란(春蘭)은 자본금의 25%인 15억위안을 2000년 종업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일종의 종업원 지주제로 종합가전사인 TCL은 유사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하였다. 컴퓨터업체인 렐샹(聯想)은 정형화된 승진과 급여없이 상사, 부하, 동료의 평가를 받아 급여가 결정된다.

☐ 중국기업은 대부분 국유기업 ?

중국 전체 공업기업 중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외자기업 포함)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었으며 상해지역의 경우 60%이상의 수출을 외자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 중국에도 증시가 활발할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사실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증권시장은 규모가 작지 않다. 2000년 중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시장가치는 4조 6천억위안으로 전체GDP의 50%에 이른다. 상장기업수는 1,063개사, 증권투자자는 5,500만명이다. 은행 금리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散戶라는 개미군단과 주식투자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 중국산 상품은 열악하다 ? - 세계의 공장 “ 중국 ”

전세계 500대 기업 중 300여개 이상이 이미 중국에 투자를 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내 투자한 외자기업 뿐 아니라 중국기업들의 실력은 점차 크게 부상하고 있다. 컴퓨터의 경우 중국내 시장을 장악하였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중국산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우수한 기초과학기술과 우수한 두뇌, 화교자본을 바탕으로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전세계 TV시장의 36%, 에어컨 시장의 50%, 세탁기 시장의 24%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오토바이, 일용품, 섬유 등이 전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다. 중국은 IT 등 첨단분야에 있어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 중국인의 정보접근도는 한국보다 떨어진 다 ?

현재 중국의 전화사용자 수는 3.24억명으로 이 중 고정전화 사용자 수 1.79억명, 이동전화 사용자 수 1.45억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도 고정전화 사용자 수 증가율은 25.1%, 이동전화 사용자 수 증가율은 69.8%이며 경제수준이 떨어지는 서부지역의 이동전화 사용자 수는 83%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동전화 보급율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고정전화와 무선호출기의 증가율은 위축되고 있으며 데이터 통신, 인터넷 통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3.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사상

□ 관시사회

중국인은 예로부터 많은 특징을 가진 국민이었다.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자궁심이 매우 강하고, 제도보다는 인간 관계(關係)를 우선시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제도가 아닌 '關係'가 일을 한다는 말이 있다. 특히 중국인을 사귀려면 제일 먼저 "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서양인이 중국인을 비하시키는 데 주로 사용하는 말의 하

나가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체면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이 있다.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과 관계가 없거나 친구 사이가 아니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인정이 많은 우리로서는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외적 환경이나 외모보다는 실력과 실용을 중시하며,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

중국의 역사와 지리는 그들의 국민성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끼쳤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들은 내란을 비롯해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당했다. 그래서, 쉽게 상대방에게 마음을 내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명분을 중요시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상이 널리 유포되었다. 역사에 의해 지배 계층은 귀족 의식, 예의 의식, 중화사상, 인내력, 절개를 중시하는 편이고, 피지배 계층은 전제정치 하에서 시달려 오면서, 농사나 자신들의 앞날을 전적으로 황제나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의존함에 따라 일반계층은 소극적이고 체념적 성향을 지니며, 이기주의, 이치에 밝게 되었다.

지리도 그들의 국민성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걸 보면, 황허강 이북의 사람들은 정통 한족이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그래서, 한 예로 북경인은 학벌이 높고 권력욕 및 명예욕이 많으며 예의를 존중하는 편이다. 양자강 부근의 민족은 바닷가와 가까이 있어서 아주 무역이나 상업에 밝다. 한 예가 상해인인데, 상해인은 국제적인 감각이 발달되어 있으며, 머리 회전이 빠르고 실용적이며 외관과 디자인을 중시한다. 그리고, 산동인은 몸집이 크고 성격이 단순하며 사람을 사귄다.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일단 친구가 되면 의리가 변하지 않는다. 한편, 절강인은 계산이 빠르고 저축율이 높으며 추진력이 강하나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는다.

사천 지방과 복건 지방은 험난한 산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개척적이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복건성은 원래 산악 지역에 거주하여 가난하지만 근면하고 부지런하다. 동북3성은 술을 좋아하며 성격이 직선적이고 적극적이다.

□ 계층간 평등주의

유교가 중국에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유교전통은 한국에 비교하면 매우 약하다. 중국은 공산주의 혁명 이후 “세계의 절반을 지키는 기둥은 여자”라고 강조하며 가정, 사회에서 남녀 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별간 차이가 없다. 또한 광활한 토지와 많은 민족이 융합되어 있어 민족간, 상하 계층간의 위계질서보다는 평등주의를 기초로한 사회질서가 자리잡고 있다.

□ 체면(面子) 중시

중국인과 대면 중에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절대로 중국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약점을 들추어 중국인이 중시하는 "面子(미엔즈:체면)"를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인의 체면 중시 사고는 과거 중화사상에 젖어 있던 향수와 함께 사회주의 혁명에 의한 평균주의 사고 방식에 의해 심화되었으며 각 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집단거주의 형성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체면 중심 사상이 왜 생겨났는지 잘 모르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은 주·춘추 전국시대를 통해 이 명분중심 사상·체면중심 사상이 발생하였다. 패자(覇者)가 되고자 하는 많은 무인들은 천자를 옹립하는 목적으로 천자의 수호(守護)라는 명분을 외쳤다. 그리고, 그 후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계속 민중을 지키고, 국가를 편히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며, 명·청 시대에는 외세를 물리친다는 명분이 있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들의 사상에는 명분을 중시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 중화사상

중화사상이라는 말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이며 모든 것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세계에 퍼져 나간다고 믿는 중국의 민족 사상이다. 중화사상이라는 말은 <삼국지>등에서 처음 나타났다. 과거의 한족(漢族)은 이 사상을 통해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해 왔다. 과거 한족이 황허강 유역에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문명을 개척해 나갈 무렵 그 주위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다. 한족은 다른 민족과 접촉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발달시켰는데, 문화가 무르익은 서주(西周)시대. 중국은 자신을 중화(中華), 동쪽의 우리나라를 동이(東夷), 서쪽의 민족을 서융(西戎), 남쪽의 민족을 남蠻(南蠻), 북쪽의 민족을 북적(北狄)이라 하였다. 한족은 주위의 민족들에 대한 문화적 우월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선민(選民)이라고 믿었고, 굳건한 중화사상을 가졌다. 당시 중국의 통치자들은 하늘의 아들이라는 천자(天子)로 칭함으로써 우월 의식을 더욱 고취하였다.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 진·한·당대에 이르러서는 중화사상이 극을 이루고 있다. 그들의 문화유산이 충분히 그들이 중화사상을 가지게끔 하고 있는데 진의 만리장성, 한의 서역길(실크로드) 개척. 서역길은 한무제때 장건에 의해 개척되었다. 당시는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월지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장건을 파견했으나, 흉노에 의해 장건이 포로가 되고 17년간의 탈출을 시도해 성공한 장건의 이야기를 들은 한무제가 개척, 당의 세계 제국이 그것이다. 특히, 한과 당은 세계적인 대제국으로서 한의 서역길 개척으로 동·서의 교역이 처음으로 이루어져 로마의 사신을 받아들였고, 당의 長安(현재의 西安)은 인구가 당시 이미 1백만명을 넘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으며, 종교 또한 국제적인 제국답게 다양한 종교가 유포되었다. 그들은 예교가 없는 이민족을 성인의 도에서 벗어난 금수로 취급했다. 그래서, 중국의 천자가 모든 이민족을 덕화(德化)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배금주의 사상

중국 상인은 전세계에 진출하여 차이나 타운을 개척, 현지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인은 전통적으로 상업에 능하고 理財에 밝다. 중국인들이 금을 좋아하고 장례식에서 돈을 태우는 풍습이 있는 것을 보면 중국인들의 배금의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 바람이 불면서 이러한 황금만능주의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VI

中國 進出時 留意事項

☐ 중국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원칙을 충실히 하라

- 중국은 외국이므로 모든 사업은 중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함

☐ 철저한 계약서 작성이 자기를 지키는 마지막 무기임을 명심하라 -계약서는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하고 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서명해야 하고, 또한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정부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라.

- 英・中・韓의 계약서 작성을 통해 향후 분쟁발생 소지를 제거해야 함.

☐ 절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지 말라

-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음. (중국적으로 중국측 파트너에게 사업체를 빼앗길 가능성이 큼)

☐ 겸손한 마음으로 既진출기업의 경험을 최대한 경청하라

- 가장 현지 사정에 밝은 既진출기업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지름길임을 명심할 것.

☐ 판시(關係)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중국측 고위 인사와 식사 한번 했다고 해서 판시(Connection)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임. 때문에 좋은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한국 및 중국 유관기관을 최대한 이용하라

- 중국에는 주중한국대사관, 중국한국상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많은 기관이 상주해 있어 이용여부에 따라 많은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초기 투자를 최소화 하라

- 시장접근 전략 차원 및 Risk 최소화를 위해 초기 진출기업은 반드시 "소규모 진출전략"이 필요함.

☐ 절대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해야 성공함

☐ 중국 파트너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라

- 중국기업의 경영 및 회계 투명성이 극히 미비함으로 진출 전 반드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함.

☐ 지역 주민이나 현지 종업원에게 배척 당하지 말라

-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로 임할 때 현지로부터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음.

☐ 未구축된 신용사회임을 명심하라

- 거래대금 결제에 따른 외상결제문화로 인한 채권확보의 애로점 -신용카드 산업의 未구축 /끝/